

# 에스겔서 종결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sup>1)</sup> - 에스겔 47장 13절-48장 29절의 신학적인 함의 -

임시영 | 성결대 강사

## 1. 들어가는 말

이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에스겔서의 형성(Komposition) 연구에 관한 선 이해가 필요하다. 크랏츠슈마르(R. Kraetzschmar)<sup>2)</sup>의 최초의 문학 비평적 연구 이래로 에스겔서의 통일성에 대한 많은 도전들이 있었다. 이러한 도전들로부터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예언자적인 선포로부터 형성된 개별 텍스트들의 “모음집(Ein allmählich entstandenes Sammelwerk)”<sup>3)</sup>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에 더하여 양식 비평적 연구는 예언자의 말과 예언서를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결과를 낳았고,<sup>4)</sup> 편집

1)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 “Die Vision von neuen Israel: Literarische Struktur, Kompositionsgeschichte und theologische Bedeutung von Ez47,.” 중 언급된 주제를 발전시켜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R. Kraetzschmar, *Das Buch Ezechiel* (Hand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Bd.3/3,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0).

3) J. Hermann, *Ezechielstudien* (BWAT Bd.2; Leipzig: Hinrichs, 1908), 12.

4) 대표적으로 G. Holscher, *Hesekiel, Der Dichter und das Buch: Eine literarkritische Untersuchung* (Gießen: Töpelmann, 1924).

비평적 연구는 결국 에스겔서의 문학적 통일성에 대한 고려 없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에스겔서 내에서 발견되는 분명한 문학적 통일성은 앞선 연구들에 긴장을 제공한다. 이에 칠펜리(W. Zimmerli)는 성장(Wachstum)과 문학적 통일성이라는 배치되는 두 개념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에스겔서는 단순한 모음집이 아니라 예언자 에스겔의 말을 보존하고 전승한 한 학파(Ezechielschule)에 의한 통일성 있는 이어쓰기(Fortschreibung)의 결과물임을 제기하였다.<sup>5)</sup> 칠펜리의 이러한 주장은 이후 연구에 있어 다시금 에스겔서의 문학적 통일성에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다.<sup>6)</sup> 에스겔서는 성장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이 전체적인 편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칠펜리가 주장 하듯이 이어쓰기에 의한 것이며 그 성장의 정도는 전체에 비해 적은 부분에 해당 하며, 성장 층은 앞선 본문의 기본적인 문학의 구조와 신학적 관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sup>7)</sup>

에스겔서가 문학적 완결체라는 진술의 도움으로,<sup>8)</sup> 또한 이것과 연관된 논증 으로부터 성립된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의 명확한 문학적 통일성의 확증으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어떻게 이 본문이 에스겔서의 결론이 될 수 있는가? 이 땅의 경계와 분배묘사의 특성과 상징적인 본질은 무엇을 형성하는 가? 어떤 빛이 에스겔 47장 13절 이하로 부터 전체 에스겔서로 조명되는가? 또한 이 본문이 어떤 실망스런 첨가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겔서 전체를 아우 르는 실제적이고 적절한, 의미심장한 결말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러한 질문 들에 대한 답은 먼저 내용적으로 에스겔서 전체를 큰 단위로 구성한 문학구조를 살피는 것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

5) W. Zimmerli, *Ezekiel* 25–28 (BK Bd.13/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9), 104–114.

6) 더 자세한 연구사에 대한 논의는 Si-Young Leem, *윳글*, 10–27을 참조하라.

7) 윳글, 170–174, 275–30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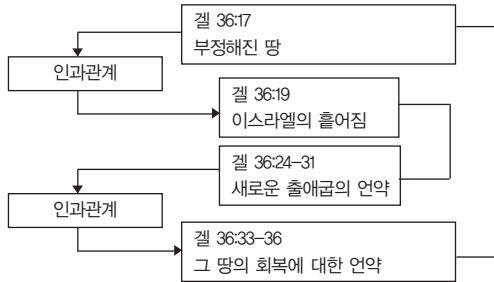
8) 에스겔서 전체는 형성된 전체로(ein kompositionelles Ganze)서 문학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일 단의 학자들이 동의한다: H. Gese, *Der Verfassungsentwurf des Ezechiel: Traditionsgeschichtlich Untersucht* (Tübingen: J.C.B.Mohr (Paul Siebeck), 1957); W. Zimmerli, *Ezekiel Teilbd. 1 und 2* (BK Bd.13/1 und 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9); J. Becker, “Erwägung zur ezechielschen Frage,” L. Ruppert, P. Weimar und E. Zenger (Hgg.), *Künder des Wortes* (Würzburg: Echter–Verlag, 1982), 137–149; M. Greenberg, *Ezekiel 1–20* (AncB Bd.22; Garden City: Doubleday, 1983) 그리고 *Ezekiel 21–37* (AncB Bd.22a; Garden City: Doubleday, 1997); L. C. Allen, *Ezekiel 20–48* (WBC 29; Dallas: Word Books, 1990) 그리고 *Ezekiel 1–19* (WBC 28; Dallas: Word Books, 1994) etc.

## 2. 전체 내용 구조를 통한 파악

에스겔서와 에스겔 47장 13절 이하 간의 통일성을 밝히기 위해서, 아울러 에스겔서 안에서의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에스겔서에서 선택한 구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학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1) 에스겔 10장 18절 이하에는 야웨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이 묘사되어 있다. 2) 야웨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후 예루살렘은 함락되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함락의 소식이 전해진 시점을 전환점으로 해서 야웨의 구원의 말이 주어진다(겔 33장 이하). 3) 에스겔 36장에서 짧은 역사 회고가 발견된다. 에스겔 36장 17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 (개역)했다고 언급한다(원인: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 결과: 땅이 부정하게 됨). 그래서 이 땅은 부정하게 되었다(원인), 그 결과로 에스겔 33장 19절은 다음의 사실을 묘사한다: 야웨는 이스라엘을 ‘각국에 흠으며’ (개역)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에 헤쳐’ (개역)졌다(결과). 4) 구원의 말이 이 역사 회고를 뒤따른다. 이 구원의 말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에스겔 36장 24-31절에서는 새로운 엑서더스(Exodus)에 대한 약속이 드러나 보인다; 36장 33-3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행위로 황폐해지고 파괴된 그 땅이 회복될 것을 통지한다: 야웨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정화할 것이다(33절/원인). 그런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 다시 살게 될 그 땅은 야웨에 의해 정화될 것이다(결과). 5) 새로운 엑서더스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은 겔 37장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된다. 37장에서는 12지파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상을 찾을 수 있다 (15-23절).<sup>9)</sup> 6) 에스겔 40장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에스겔의 4번째 환상으로써 상징적으로 묘사된다: 에스겔 40장 1절-42장 20절은 새로운 성전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 성전환상은 에스겔 33장 21절의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보고와 대비된다. 성전에 관한 묘사 후에 야웨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온다(겔 43:1-5). 이러한 야웨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에 관한 환상은 다시금 에스겔 10장 18절 이하에서 야웨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에

9) 에스겔 37장 19장 이외에 에스겔 1-39장 안에서 열두지파 이스라엘에 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열두지파 이스라엘에 관한 언급은 단지 에스겔 40-48장의 제도초안(Verfassungsentwurf) 안에서만 찾아진다. 이 언급은 특별히 땅의 분배에 관해 언급하는 본문(겔 47-48장)과 연관되어 있다(47:13-14, 21, 22-23, 48:1, 19, 23, 29,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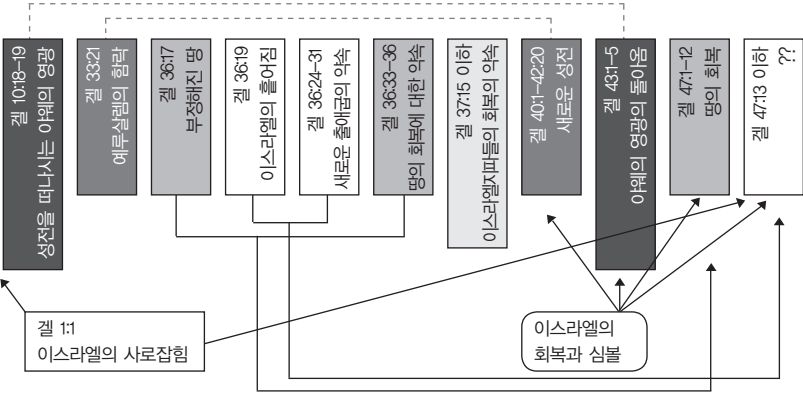
대한 묘사와 대비된다.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야웨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곳으로부터 한 샘이 발원할 것이다(겔 47:1), 그리고 그 샘으로부터 흘러내린 물은 강을 이룰 것이다(겔 47:5). 이 흘러내리는 물 때문에 성전이 놓여 있는 그 땅은 더 이상 부정한 땅이 아니라(겔 36:17) 정결한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그곳은 생명의 땅이 될 것이다(겔 47:1-12). 이런 의미에서 에스겔 36장 17절과 47장 1-12절은 동일한 신학적인 맥락아래 서있다. 7) 그러면 어떠한 상징적인 언급을 에스겔 47장 1-12절에 있는 그 땅의 회복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에 뒤따라 나오는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가? 이미 살핀 바대로 에스겔 36장 17절과 36장 19절 그리고 36장 24-31절과 36장 33-36절은 인과관계 안에 서있다. 이 각각의 인과관계로 형성된 구절들은 새로운 엑서터스의 약속과 관련해서(겔 36:24-31) 그리고 그 땅의 회복의 약속과 관련해서(겔 36:33-36) 다음과 같이 교차대구의 도식적 구조를 보인다.



〈그래프〉

이러한 서술의 순서와 에스겔 37장 15절 이하의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에서 어떠한 언급이 나와야만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언약에 의해서 부정해진 땅은 47장 1-12절에서 상징적으로 회복된다(부정한 땅 - 그 땅의 회복에 관한 약속 - 이 약속의 상징적인 성취). 만약 이 땅이 회복된다면(원인), 우리는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에서 모든 나라로 흠어졌던 이스라엘의 모음에 관한 언급을(또는 이스라엘의 귀환) 그리고 또한 땅의 회복의 성취에 대한 결과로서 새로운 엑서터스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어진 땅의 연고로 흠어지고 파괴되었다면, 땅의 회복에 따른 결과는

분명 흠어졌던 이스라엘의 귀환이어야만 한다. 에스겔 36장 17절, 36장 19, 24-31, 32-36절, 47장 1-12, 13절 이하에 있는 땅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러한 인과론적 관계는 하나의 도식적인 순서를 형성한다: A-B-B'-A'-A''-B''. 8) 이제까지의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의 도식이 만들어진다.



〈그래프2〉

위 도표는 다음의 순서로 구성된다: A-B-C-D-D'-C'-B'-A'-(B'')-(A'')-C''-D'' A에서 A'까지가 교차대구를 이루고, 전체 내용이 다시 한 번 (B'')이하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B'')-(A'')는 생략된다. 아마 이것은 앞선 B'-A'와 맞닿아 있어서 반복을 피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 이유에 (B'')-(A'')의 순서는 원래적인 (A'')-(B'')의 순서를 뒤집고 있다. 이러한 고려는 '에스겔 37장 15절 이하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회복의 약속'이라는 전체 구조를 깨고 들어온 듯 보이는 요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에스겔 37장 15절 이하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회복의 약속' 으로부터 반복적인 결론이 이끌어지며 더욱이 후반부의 다섯 요소가 '에스겔 43장 1-5절 아웨의 영광이 돌아옴'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교차대구를 형성한다: '아웨의 영광이 돌아옴'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전'의 이상은 그 성전이 세워질 '땅의 회복'과 병렬되며, '이스라엘 지파들의 회복의 약속'은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의 요소와 병렬된다.

내용적인 순서와 구조적인 맥락에 의거하여 기대되는 새로운 엑서더스와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의 상징으로써 땅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경계묘사와 분배의 묘사는 하나의 주제 아래(야웨에 의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새로운 땅의 수여)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에 이끌어진다.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열두 지파 이스라엘의 회복의 상징으로써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에스겔 47장 13절-48장 29절에 따르면 야웨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 약속의 땅을 다시 위임한다. 12지파 이스라엘은 이 땅을 각 지파에게 동일한 몫으로 분배한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 보존한다(겔 47:13 이하).

### 3. 새로운 엑서더스(Exodus)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제기 된다: 12지파 이스라엘은 포로기 이후시기에 존재하였는가? 만약 12지파 이스라엘이 포로기 후기 시기에까지 존재했었다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미 이른 시기에 그들의 왕국의 멸망을 통해(722/3 북왕국, 586/7 남왕국) 역사에서 사라졌다.<sup>10)</sup> 그러나 에스겔 47장 13절-48장 29절에 있는 새로운 땅의 분배는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존재를 하나의 전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야웨가 그들의 첫 번째 시작이었다면 그리고 야웨가 그들을 파괴하였다면, 그렇다면 야웨는 그들의 회복도 이끌 수 있음에 틀림없다. 에스겔 37장에서 우리는 이미 이것에 관해 인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에는 새롭게 형성될 12지파 이스라엘에 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두 번째로 에스겔 47장 15-20절에 있는 새로운 경계의 묘사는 새로운 엑서더스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땅의 묘사는 목적지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엑서더스의 상징이 된다.<sup>11)</sup> 이러한 생각은 다시 한 번 에스겔 47장 15-20절이 요단강 서

10) 비교하라, 베르너 H. 슈미트, 「구약 성서 입문」 (차준희/채홍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9. 원저는 Werner H. Schmidt,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슈미트는 더 일찍 죽, 왕정이 형성된 시기로부터 지파제도가 사라졌음을 말한다.

11) W. 브루지만/H. W. 볼프, 「구약 성서중심사상」 (문희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2), 193, 각주 25. 원저는 W. Brueggemann/H. W. Wolff, *The Vitality of Old Testament Traditions*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쪽 지역만으로 한정되어진 이스라엘의 지역이 남쪽과 북쪽으로 확장되어 있긴 그러나 그리고 명확히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는 일반적인 경계를 넘어서고 있긴 그러나 예전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경계와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보강되어 진다. 게다가 뒤따라 나오는 각 지파에게 주어지는 땅의 배당에 대한 보고로부터 또한 어떤 새로운 엑서더스를 인식할 수 있다. 신학적인 견해 안에서 전체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부터 축출되었다. 아웨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지로 이주되었다. 그 결과 그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황폐해지고 사막화 되었다 (겔 36:34 이하). 그러나 지금 그 땅은 다시 회복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된다. 그리고 아웨는 이스라엘을 땅의 새로운 수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으로 이끄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 새로운 땅의 분배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새로운 엑서더스를 통해 다시 모아질 이스라엘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을 전제한다 - 마치 애굽으로부터의 엑서더스가 첫 번째 땅의 수여와 땅의 분배에 있어 근원적인 조건이었던 것처럼 말이다.<sup>12)</sup> 마지막으로 땅의 분배에 있어 지파들의 언급의 순서 또한 새로운 엑서더스의 상징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에스겔 48장 1절 이하의 순서는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광야 이동 순서와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유다 - 잇사갈 - 스불론 - (성막) - 르우벤 - 시므온 - 갓 - (성소의 기구들) - 에브라임 - 므낫세 - 베냐민 - 단 - 아셀 - 납달리. 2) 민수기 10장에 따르면 12지파는 4개의 그룹으로 분할된다, 즉, 3개의 지파가 한 그룹을 형성한다. 이러한 그룹화는 민수기 2장의 광야에서의 정주 규정에서 또한 볼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유다, 잇사갈 그리고 스불론이 속한다; 두 번째는 르우벤, 시므온, 갓; 세 번째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네 번째는 단, 아셀, 납달리로 이뤄진다. 3)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의 네 번째 그룹은(단, 아셀, 납달리) 에스겔 48장 1절 이하에서도 또한 한 그룹으로 발견된다. 에스겔 48장 1

12) 비교하라, U. Fißill, *Israel und das Ostjordanland: Untersuchungen zur Komposition von Num 21,21-36,13 im Hinblick auf die Entstehung des Buches Numeri* (Frankfurt a. M. u.a.: Lang, 2007), 156-169, 173: 그는 중월/포로와 되돌아옴에 관한 모티브를 서로 비교하였다.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R. Rendtorf,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 Ein kanonischer Entwurf Bd.1: Kanonische Grundlegun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9), 58ff.



절 이하에서 네 번째 그룹에 속하는 단, 아셀, 납달리는 북쪽 가장자리에 순서대로 놓여 있다.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와 에스겔 48장 1절 이하의 차이는 단지 언급의 순서에 있다. 민수기 10장에서 단, 아셀 그리고 납달리는 전체 지파의 언급에서 마지막에 위치하는데 반해, 에스겔 48장 1절 이하에서는 맨 먼저 언급된다.<sup>13)</sup>

4) 르우벤과 베냐민 그리고 유다와 갓의 자리의 이동에 대한 고려가 이러한 그룹의 규정에서 주목된다: a) 베냐민은 **בְּנֵימִן** (테루마/드림: 의미적으로 드림이 된 구역)의 남쪽에 인접하여 놓인다. 민수기 2장과 10장의 그룹의 규정에 따르면 베냐민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한 그룹을 형성하여야만 한다(라헬에 따른 정실 자녀로써의 세 지파). 그러나 에스겔 48장에서는 베냐민이 아니라 르우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한 그룹을 형성한다. 여기서 우리는 베냐민과 르우벤이 그들의 원래적인 자리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 왜 이러한 자리 이동이 발생했을까? 이러한 자리의 이동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에 정주하였었다는 이전의 전통을 기억한 결과인가?<sup>14)</sup>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베냐민을 성전이 있는 '테루마'의 남쪽에 위치하게 한 것은 이전의 전통을 생각하는 어떤 노력의 결과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위치의 이동을 재구성한다면, 우리는 민수기 2장과 10장의 세 번째 그룹과 비교할 수 있는 지파의 그룹을 에스겔 48장 1절 이하에서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그룹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이 속한다. b) 여기서 유다와 갓의 자리 이동 또한 다루어져야 한다. 르우벤과 베냐민의 자리이동을 통해 단지 베냐민만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르우벤 또한 자신의 원래 자리라 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자리 이동을 통해 르우벤은 시므온과 인접하여 놓인다. 여기서 유다와 갓의 위치가 눈에 띈다. 유다는 자신의 자리를 갓과 바꾼 것 같다. 이러한 자리의 교환을 통해 유다가 '테루마'의 남쪽에 더욱이 바로 옆에 인접하여 놓이는 것이 기대된다. 여기서 유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지파로써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이 고려되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로 유다는 '테루마'의 북쪽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르우벤과 베냐민의 자리바꿈에서 베냐민이 이전의 전통에 의거해서 '테루마'와 인접한 남쪽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 이미 고려되어 있기 때문이다. 갓의 위

13) 에스겔 48장 11절 이하에서 이 그룹들은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의 순서와는 완전히 역순으로 언급된다.

14) 여호수아 18장 11-28절



치가 남쪽 가장자리로 밀쳐져 있음이 또한 이목을 끈다. 정실자녀 지파들이 민수기 2장과 10장의 그룹 규정의 언급에서 항상 첩실자녀 지파들에 앞서 언급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에 상응하여 에스겔 48장의 땅의 분배 순서에 있어 첩실자녀 지파들은 북쪽과 남쪽의 가장자리로 밀쳐져 있음을 또한 명확히 알 수 있다.<sup>15)</sup> 이러한 의미에서 갖은 남쪽 가장자리로 이동되었다. 또한 만약 유다와 갓의 자리가 서로 교환되었다면, 우리는 에스겔 48장의 마지막 두 그룹들을 민수기 2장과 10장에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그룹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번의 지파들 간의 위치 이동을 통해서 에스겔 48장의 지파들의 배열은 민수기 10장의 지파들의 배열과 완전히 유비되어질 수 있다. 에스겔 48장의 지파 배열은 민수기 10장과의 비교에서 뒤집혀진 형태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지파와 지파의 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룹과 그룹의 위치와 관련된다.<sup>16)</sup> 이러한 비교와 함께 우리는 에스겔 48장의 지파 배열의 암시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생각에 에스겔 48장에 있는 지파 구역의 이러한 배열은 어떤 새로운 엑서더스 그리고 가나안으로의 이주를 암시적으로 상징화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스겔 48장과 민수기 10장의 이러한 역순의 관계는 이해될 수 있다: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광야 진행의 배열이 원래적으로 남쪽으로 부터 계획된 이주에 상응한다면, 에스겔 48장의 지파의 배열은 북쪽으로부터 계획된 이주와 함께 바벨론으로부터의 새로운 엑서더스를 고려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에스겔 48장은 이주의 상징 또는 광야에서의 이동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상응하여 에스겔 47장 22절 이하 또한 새로운 엑서더스의 상징으로써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에스겔 44장 6-9절과 함께 신학적으로 상호 동일한 맥락 아래 서있는 에스겔 47장 22절 이하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한 땅의 분배를 보증한

15) R. Smend, *Der Prophet Ezechiel*, Kurzgefasstes exegetisches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Leipzig: Hirzel, 1880), 392-397.

16) 비교하라, 윗글, 392-397: Smend는 에스겔 48장 1절 이하의 지파의 배열과 에스겔 48장 30절 이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것과 관련하여 또한 참조하라, M. Konkel, *Architektonik des Heiligen: Studien zur zweiten Tempelvision Ezechiels* (Ez 40-48), Bonner Biblische Beiträge (Berlin: Philo, 2001), 219. 에스겔 48장 1절 이하의 지파들의 배열은 48장 30절 이하의 성의 문들에 대한 이름의 언급 순서와 잘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지파의 논리적인 위치 교환을 통해 양 본문의 지파의 배열의 순서와 그룹지음은 아주 잘 조화된다. 양 본문의 배열순서의 차이점은 단지 에스겔 48장 30절 이하에서 레위가 이스라엘의 지파로써 다시 포함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 왜냐하면 **גֵּרִים**(게립/외인들)을 위한 땅은 그들이 정주하고 있던 각 지파들의 영역에 놓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22절 이하의 보고는 내용적으로 새로운 엑서더스와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재건, 또한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른 땅의 분배를 전제할 때에만 이해 가능한 것이다.<sup>17)</sup>

이로써 어떠한 내용이 에스겔 47장 1-12절에 뒤따라 나와야만 하는지가 앞서 살핀 결과로부터 명확해 진다. 이것은 새로운 엑서더스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어야만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에스겔 47장 15-20절에서는 경계의 묘사가 언급된다(Exodus: 어디로 Exodus할 것인가?). 이러한 경계 묘사를 뒤이어 땅의 분배에 대한 묘사가 에스겔 48장 1절 이하에 나온다. 이 분배의 묘사는 모든 지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 지파들에 대한 전체 땅의 분배를 묘사한다. 그리고 이 묘사는 열 두 지파 이스라엘 컨셉트를 이스라엘의 재건의 도안으로 포괄하고 있다(이스라엘 지파들의 회복은 각 지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 생각할 수 있다).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에 있는 이러한 상징화된 엑서더스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미래적인 회복의 약속에 대한 상징적인 성취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에 대한 문자적으로 현재적인 경과이다. 이러한 경과를 우리는 가나안으로의 이주에 대한 이상에 영향을 받은 땅의 분배에 관한 묘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앞서 열거한 고려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확인된 에스겔서의 문학적인 구조와 관련하여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이 본문의 경계 묘사와 땅의 분배 묘사는 하나의 주제 아래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즉, 야웨에 의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땅의 수여). 이와 상응하여 우리는 이러한 에스겔서의 구조를 통해 무엇이 기대되어지는지 밝힐 수 있다. 만약 에스겔서가 47장 12절에서 끝나버렸다면, 내 생각에 에스겔서는 클라이맥스 없이 불 완전히 종결될 뿐이다(즉, 어떤 구조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종결).<sup>18)</sup>

이러한 맥락에서 에스겔 47장 1-12절의 기능이 또한 밝혀진다. 첫 번째로 이

17) 에스겔 47장 22-2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지파들 속에 함께 살고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은 외인들은 12지파 이스라엘과 같이 땅의 분배에 있어 그 땅을 자신의 개인적인 소유로 수여받는다. 외인들은 그 땅을 자신들이 머물러 있던 지파들 안에서 분배받는다. 그래서 만약 외인들에게 땅이 분배되어지려면,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이 분배되어져 있어야만 한다.

18) 참조 <그래프 2>

본문은 이전의 선언에 대한 성취이다. 이 땅은 아웨의 약속에 따라 원상복구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교차대구적으로 배열된 에스겔서의 문학적인 구조에 따라 새로운 엑서터스의 언급과 이스라엘 지파들의 회복을 이 책의 결론으로 도입하는 역할을 한다.<sup>19)</sup> 세 번째로 이 본문의 내용은 정방형 적이고 도식적인 이스라엘 각 지파에 따른 땅의 분배를, 이러한 분배는 완전히 실현불가능하다, 총괄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본문의 언급에 의하면 전체 땅은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의해서 동일한 풍요로움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통해 에스겔 47장 14a<sup>c</sup> 절의 규정인 ‘피차없이’(개역)가 실현될 수 있다.<sup>20)</sup> 그래서 이 본문은 한편으로는 땅의 회복을 상징하는 하나의 탁월한 부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결론부의 클라이맥스를 이끄는 그리고 내용적으로 준비하는 연관 부분을 형성한다.

#### 4. 실제적인 희망으로서의 에스겔 47장 13절 이하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의 경계 묘사와 땅 분배의 묘사가 역사 속에서 실현된 적이 없으며 그리고 실제로도 실현불가능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스겔 47장 13절-48절 29절은 어떤 문서적인 땅의 수용이다. 이러한 문서적인 땅의 수용의 내용은 문서적인 엑서터스와 문서적인 이주의 상을 포함한다. 또한 성전 환상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문서적인 성전의 의미한다.<sup>21)</sup> 여기로부터 우리는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만약 앞선 연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또한 질문해보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하여 어떠한 희망을 에스겔 47장 13절 이하는 실제로 말하고 있

19) 에스겔 47장 1-12절과 47장 13절 이하사이의 연결의 관점에서 비교하라. W. Zimmerli, "Planungen für den Wiederaufbau nach der Katastrophe von 587" (Vetus Testamentum Bd.18; Leiden: Brill, 1968), 246; U. Schorn, Ruben und das System der zwölf Stämme Israels: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en zur Bedeutung des Erstgeborenen Jakobs* (BZAW Bd.248; Berlin / New York: de Gruyter, 1997), 21.

20) "각 지파별로 서로 다른 북에서 남쪽의 넓이를 통해 대략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지파 구역을 만들 수 있 다손 치더라도(이것에 관해서 본문은 침묵한다), 그 땅의 지형적인 비옥함의 상태는 각 지파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땅을 나눠주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비옥한 갈릴리 지역과 그와는 다른 내륙지역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T.A. Rudnig, *Heilig und Profan: Redaktionskritische Studien zu Ez 40-48* (BZAW Bd.287; Berlin/New York: de Gruyter, 2000), 180. 만약 그 땅의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을 고려한다면, 에스겔 47장 1-12절의 기능적 측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에스겔 47장 1-12절은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의 이상적인 땅의 분배를 위한 전제가 된다.

는가? 왜 이스라엘은 이러한 비현실적인, 즉, 도무지 실제로 실현되어 질 수 없는 이러한 회복의 초안(Verfassungsentwurf)을 전승하였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예언서에 더욱이 에스겔서의 결론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야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새로운 땅의 수여라는 주제 아래 통합되는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의 본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내용과 에스겔서 전체의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이미 확정되었다. 성전과 땅의 재건이라는 두 개의 상징들과 함께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대망한다. 에스겔 47장 15-20절과 예레미야 32장 1-44절의 비교 읽기를 통해 새로운 경계의 묘사의 기능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으로써 분명히 제시될 수 있다. 예레미야 32장에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의 이야기가 나온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다(3-5절),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위대의 뜰에 갇혔다(2절). 그곳으로 하나멜이 아내와 함께 있는 자신의 밭을 예레미야에게 팔기 위해서 온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 기업을 무를 권리(7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웨의 말씀에 의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밭을 샀다. 그리고 그는 야웨가 그에게 명한바 대로 봉인한 매매 증서를 보존하였다. 왜냐하면 그 땅은 훗날 다시 매매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되는 땅의 매매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야웨의 구원의 행위에 대한 상징으로서 그 땅을 산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보관한 매매 증서는 단순히 땅의 소유에 대한 문서가 아니라 언젠가 야웨에 의해 다시

---

21) 비교하라, H. Liss, "Describe the Temple to the House of Israels," Ehud Ben Ziv (Hgg.), *Utopia and Dystopia in Prophetic Literature*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2006), 143.

이러한 생각은 이해되어 질 수 있다. 포로기의 시기에 예루살렘과 야웨의 성전은 파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로민에게는 어떤 새로운 성전의 필요가 필수불가결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성전과 함께 포로지에서 야웨의 백성으로 자아를 인식하고 다른 민족과 구분되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여기서 우리는 할례를 이와 관련된 다른 하나의 예로써 언급할 수 있다. 포로기의 시기로부터 할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으로써 (Identifikationsfigur) 기능하였다. 새로운 성전의 필요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의 시도와 포로지에서의 선지자의 선포는 이해되어 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은 역사적 회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이미 무너져 버린 옛 성전을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그러나 문서적인 성전의 의미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문서적인 성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성전에 관해 언급하는 에스겔 40장 1절-42장 20절의 성전의 환상은 매우 잘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새롭게 건설될 문서적인 성전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으로 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윌겔, 143).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의 증서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에스겔 47장 15-20절에 있는 새로운 경계의 묘사는 비록 이것이 전체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후기 포로기와 포로기 후기 초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증서로서 기능을 한다. 즉, 경계의 묘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과 상징이 된다. 만약 이 경계의 묘사가 그런 상징이라고 한다면, 더욱이 우리는 이 묘사에서 어떤 이상상 또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미래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발견해야만 한다. 그래서 경계의 묘사에 의해 규정된 이 땅은 경계묘사를 뒤따르는 가공적인 그러나 이상적인 땅의 분배의 묘사를 서술함에 있어 그리고 에스겔 47장 14aα 절의 명령을 실행함에 있어 아주 적합하다.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의 땅의 분배의 묘사와(48:1-28) 구조적 틀 부분에 해당하는 서술은 (47:13-14, 21-23, 48:29)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희망을 명확히 보여준다. 땅의 분배의 묘사 안에서 직접적인 12지파 이스라엘의 언급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에 대한 상징으로써 두드러진다. 그리고 틀 부분에서는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눈에 띈다. 그 땅에서의 12지파 이스라엘에 관한 진술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모음과 그 땅으로의 이스라엘의 귀환을, 또한 그것을 통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알린다. 그에 상응하여 야웨에 의한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새로운 땅의 수여라는 테마로 집약되는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의 모티브는 실현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이상적인 그러나 동시에 야웨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희망이라는 관점에서는 실제적인 것이 된다.<sup>22)</sup>

## 5. 이스라엘의 회복: 과거로의 회귀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만 한다: 에스겔의 이러한 희망의 본질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이스라엘의 회복은 야웨의 새로운 창조를 통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가? 이제까지의 논증으로부터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에스겔 47장 13절 이

---

22) 내 견해로 포로민들은 이러한 이상적인 희망을 통해서 실제적인 포로지에서의 고난을 더 잘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대라는 것은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경계의 묘사와 땅의 분배의 묘사가 매우 이상적으로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매우 실제적으로 가능했을 것이다.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의 문자적인 성취는 기대되어 질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실제 역사 속에서 발생한 사실 또한 없다.

하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과거의 한 시점으로 되돌려 놓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론은 다음에 뒤따르는 세 가지의 견해를 통해 실증되어 진다. 이것들은 이미 앞서 언급되어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단지 짧게 요약할 것이다: 1) 에스겔 47장 15-20절의 경계지역의 리스트는 요단강 서쪽지역을 이스라엘에 대한 아웨의 선물로써 고려한다. 이 리스트에서 요단강은 그 땅의 동쪽경계를 형성한다(18절).<sup>23)</sup> 요단강 서쪽지역만으로 한정된 이스라엘의 영역은 동시에 남쪽과 북쪽으로 확장되어 있다(15-17절, 19절). 이러한 이스라엘의 한정된 그리고 확장된 영역의 관점은 가나안이라는 땅의 개념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다. 가나안이라는 땅의 개념은 성경의 전승 안에서, 그리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적인 고려 안에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땅과 관련해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어떤 오래된 기본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sup>24)</sup> 에스겔 47장 15-20절의 경계의 리스트는 이미 이전의 역사적인 사건에 동조한다. 그 사건에 있어 12지파 이스라엘은 그들의 첫 번째 땅의 수용을 수행할 수 있었다. 2) 12지파 이스라엘의 컨셉트는 그래서 포로기, 포로기 후기의 시간에서 먼저 어떤 이스라엘의 'Identifikationsfigur' (정체성 또는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준)로써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 "이상적인 과거의 체계화된 (재)구성"<sup>25)</sup>으로서 역할을 한다. 공동의 그리고 그동안에 유례없는 것이 되어버린 그들의 종교의 연결선 앞에서 포로기의 그리고 포로기 후기의 이스라엘은 12지파 이스라엘의 이상을 과거로 연결하는 계보적인 결속의 연결선으로 사용하였다.<sup>26)</sup> 포로기와 포로기 후기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러한 계보학적인 12지파 이스라엘의 컨셉트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과 자의식을 파악하였고 또한 강화하였다.<sup>27)</sup> 그러므로 그들의 희망에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언급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시점을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시점은 왕정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이전의 시

23) 비교하라, P. Diepold, *Israels Land* (Stuttgart u.a.: Kohlhammer, 1972), 290이하; 178; T. A. Rudnig, *윳글*, 188.

24) P. Diepold, *윳글*, 178.

25) U. Fißill, *윳글*, 161.

26) 비교하라, H. Seebass, "Erwägungen zum altisraelitischen System der zwölf Stämme," *ZAW* 90 (1978), 217.

27) 이러한 12지파 이스라엘의 컨셉트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계보적인 관심에 의해서 역대기 (Chr)와 역대기역사서(ChrG)까지 유지되었다. 비교하라, K. -F. Pohlmann (T. A. Rudnig), *Das Buch des Propheten Hesekiel (Ezechiel) Kapitel 20-48* (ATD 22/2;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2001), 502; H. Seebass, *윳글*, 213f.; U. Fißill, *윳글*, 156-169, 173.

기에 상응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12지파 이스라엘의 컨셉트를 포함하고 있는 에스겔 48장 1-28절의 땅의 분배에 관한 묘사는 그리고 문학 구조에 있어 본문의 틀 부분을 형성하는 에스겔 47장 13-14, 21-23절, 48장 29절은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써 시간적인 되돌림을 위해 노력한다. 3) 에스겔 48장 1-28절에서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의 명령을 민수기 10장의 지파들의 배열에 관한 언급과 함께 비교하여 읽을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또한 어떤 야웨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의 출발점으로서의 복귀를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의 이주의 상은 땅 분배 묘사에서의 지파들의 배열과의 비교에서 완전히 형상화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작은 야웨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 자신이 과거와 단절됨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겔의 희망 속에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과거 한 시점으로 되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되돌려진 그 시점으로부터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과거에 속하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이 이미 한 번 경험했었고 그리고 그곳 이후에 이스라엘과 야웨가 부정적 관계를 맺게 된 시점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스라엘이 다시 그 시점으로 되돌아켜 진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의 경과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역사 안에서 이전의 시점으로 되돌아켜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러한 생각은 구약 성서적인 시간 개념을 통해서 증명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의 시간들을 자신들 앞서 놓인 사실로 바라본다”<sup>28)</sup> 이러한 관점에 따라 사람들은 노를 저어가는 사람처럼 자신의 등으로 미래라는 시간을 향해 나아간다: 그는 자신이 볼 수 있는 자신 앞에 놓여진 과거를 보고 목적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미래로 나간다.<sup>29)</sup> 이러한 시간 개념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과거는 단지 지나가버린 잊혀진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과거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간개념을 통해 밀접하게 현재와 연결된다. 이러한 시간개념에 있어 과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향해

---

28) H. W. Wolf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Gütersloh: Kaiser, 2002), 134.

29) 윌클, 135.



향해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척도가 된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이러한 시간개념 속에서 매우 밀접하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만약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미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은 상상되어질 수 없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생성된 자신의 과거와의 분리를 통해서 이끌어질 것이다. 시간의 관념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과거 없이 자신의 현재를 살 수 없으며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숙고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한 이상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들의 과거의 한 시점에 세워지는 것으로의 회복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점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여전히 과거와의 관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거로부터 그리고 되돌려진 현재를 통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30)</sup>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또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에스겔 47장 13장-48장 29절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명확하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야웨는 먼저 이스라엘 12지파를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회복이라는 것이 아주 새로운 것이라면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과 어떠한 연결도 없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적인 연속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에 에스겔의 선포는 희망의 선포가 아니라 오히려 또 한 번의 심판의 선포가 된다.<sup>31)</sup> 왜냐하면 원래적으로 이미 12지파 이스라엘에 속해있던 사람들은 새롭게 생성되는 12지파 이스라엘의 구성원에 속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야웨가 원래의 12지파 이스라엘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롭게 창조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전의 이스라엘과 동일시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해야만 한다. 에스겔 36장 23-28절과 39장 28-29절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야웨에

30) 이러한 시각으로부터의 회복의 이상은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신학적 사고와 비교되어 질 수 있을까? 왜 사람은 단지 거듭남을 통해 새롭게 되어 질 수 있는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과거의 시점으로서의 되돌려놓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31) 비교하라, 창세기 32장 이하: 만약 어떤 새로운 민족이 이전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야웨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면, 이것은 야웨에 의해 이전에 선택되어진 이스라엘의 심판과 근절을 의미한다.

의해 파괴되고 흩어진 12지파 이스라엘이 그 흩어진 나라들로부터 이끌어 내어 지고 모든 땅으로부터 모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이끌어 지고 모아진 12지파 이스라엘은 새롭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회복되어 질 12지파 이스라엘은 자신의 과거와 결합되어 있음이 명확하다. 이 맥락에서 회복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이미 한 번 경험했었던 이전의 어떤 상태로 되돌려지는 것일 수 있다. 그곳은 아마 이스라엘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파괴된 야웨와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일 것이다. 이러한 사고에 이어 에스겔 47장 13-48장 29절에서는 어떠한 과거의 시점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초로 고려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가장 먼저 왕정시기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의 기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 이전 마지막 정치 형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우세한 국가적 형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은 이상 상으로서 자신의 나라와 왕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강하게 형성된 희망을 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어떠한 솔로몬의 도시에 관한 고려도, 그리고 왕의 궁전에 관한 고려도 찾을 수 없다.<sup>32)</sup> 왕의 궁전과 성전은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단지 '그 성'으로 언급될 뿐이다. מֶלֶךְ(멜레크/왕)는 אֲשֵׁר(나쉬/지도자)로 교체되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다음을 인지할 수 있다: 겔 47:13-48:29의 회복은 어떤 왕국적인 것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 אֲשֵׁר(나쉬/지도자)는 מֶלֶךְ(멜레크/왕)와는 다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땅을 소유한다. מֶלֶךְ(멜레크/왕)의 사상이 전체적으로 포기된 것은 아니라고 하나,<sup>33)</sup> 이미 코흐(K. Koch)가 말했듯이, 이것은 단지 부차적인 현상일 뿐이다.<sup>34)</sup> 결국 מֶלֶךְ(멜레크/왕)에 관한 생각은 포기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왕정 또한 포기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회복에 대한 초안과 왕정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도 없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32) 비교하라, W. Zimmerli, *Studien zu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und Prophetie*, Gesammelte Aufsätze/W. Zimmerli Bd,2 (Theologische Bücherei Bd,51; München: Kaiser, 1974), 163. 또한, W. 부루지만/H. W. 볼프, *윗글*, 177.

33) 비교하라, B. Lang, *Ezechiel, Der Prophet und das Buch* (EdF Bd,153;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1), 121; G. Hölscher, *윗글*, 211.

34) K. Koch, *Die Propheten II: Babylonische-persische Zeit* (Stuttgart u.a.: Kohlhammer, 1998), 114.

따라서 국가 이전의 시기에서 이러한 연결점을 찾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회복의 초안은 국가 이전의 시기와 어떤 관련이 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것은 또한 제사장문서에서와 제2이스라엘에서 찾아질 수 있다.<sup>35)</sup> 여기서 회복은 새로운 제도 초안에 의거해서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하였고, 심판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적인 삶을 이끌 수 있는 이스라엘의 과거로부터 도출된다. 그래서 땅의 분배는 다시 한 번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 상응하여 묘사된다. 즉, 에스겔 40장 이하의 주제인 새로운 이스라엘의 형성은 새로운 땅의 분배를 통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의 시기와 연결되어진다.<sup>36)</sup>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의 의미를 구원의 선물로 고려할 수 있다. 땅의 위임은 단순히 삶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권리의 위임을 의미한다.<sup>37)</sup> 만약 일단의 사람들이 아웨로부터 땅을 그들의 소유로 받는다면, 그리고 만약 이 땅을 그 해당자들이 동일하게 분배해 가진다면, 이 땅은 단지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 토지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곳에서 아웨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동일한 정도의 권리를 가져야함을 묘사하는 것이다.<sup>38)</sup> 아웨는 자신의 백성에게 그 땅을 동등한 권리의 삶을 위한 기반으로 이미 첫 번째 땅의 분배에서 약속하였고 또한 수여하였다(비교 겔 47:14). 그러나 왕정의 시기에 이 땅은 그릇된 사용과 그릇된 소유를 통해 그 원래적인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것은 아웨 백성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붕괴를 이끌었다. 만약 여기서 그 땅에 관한 것이 다시 약속된 것으로 언급된다면, 그 안에는 평등의 생각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땅의 분배의 초안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초기의 역사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새로운 땅의 분배의 희망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역사의 초기 시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두 번째로 미래의 순종적인 역사를 위한 시작점에 세워지는 것이다.

---

35) B. Lang, *윳글*, 121.

36) 비교하라, G. C. Macholz, "Noch einmal, Planungen für den Wiederaufbau nach der Katastrophe von 587: Erwägungen zum Schlusssteil des sog. "Verfassungsentwurfs des Heseekiel"(Vetus Testamentum Bd.19; Leiden u.a.: Brill, 1969), 351.

37) 비교하라, *윳글*, 350.

38) 이러한 생각은 F. Crüsemann, *Bewahrung der Freiheit: das Thema des Dekalogs in sozialgeschichtlicher Perspektive* (München: Kaiser, 1983)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 6. 나가는 말

앞서 이끌어진 모든 고려들은 다음의 결론을 이끈다: 에스겔 1-32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심판의 말이 나온다. 심판의 말은 에스겔 33장에서부터 구원의 말로 대체된다. 즉, 구원의 선포는 예루살렘의 무너짐에 대한보고 이후에 시작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이스라엘의 영점(Nullpunkt) 또는 시작점(Ausgangspunkt)이 된다. 에스겔 40-48의 제도의 초안은(Verfassungsentwurf)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새 성전, 새 제사 그리고 새로운 땅. 성전의 회복이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테마는 새로운 땅이라는 하나의 관점에 집중된다. 왜냐하면 회복된 이스라엘의 실현에 대한 관점에서,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유지의 관점에서 또한 새로운 엑서더스와 12지파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하여 이 테마는 다른 두 테마를 아우르는 본질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결정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땅의 언급에 있어선 항상 이스라엘이 회복의 유일한 중심으로서의 성전에 대한 재 고려가 행하여진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 위에 성전이 세워져야할 영역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한 땅의 분배에 있어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에스겔 48장 8<sup>bx</sup>-22절 안에 '테루마'의 상세한 묘사가 이러한 언급이 이미 겔 45:1-12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한번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의 땅의 분배에 대한 묘사 안에 첨가되어야만 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이렇듯 첨가된 '테루마'의 묘사를 통해 '테루마'가 땅 분배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다. 그리고 분배된 땅의 중심에 놓인 '테루마'의 중심에 성전이 있다는 것 또한 강조된다. 이것을 통해 성전 중심적인 땅 분배의 이상은 명확히 드러난다.

첫 번째 엑서더스와는 달리 새로운 엑서더스에 관해 언급하는 에스겔 37장과 에스겔 47장 13절 이하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인간적인 지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증거임에 틀림없다: 새로운 출애굽은 야웨에 의해 스스로 실행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높이의 제도를 단지 한 번만 언급하고 있는 성전 환상과 비교되어질 수 있다. 새로운 성전은 이스라엘에 의해 건설되지 않는다. 성전은 이미 그곳에 있다; 또는 성전은 최소한 야웨에 의해 세워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전환상은 높이의 척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왜냐하면

성전환상은 성전의 척도를 어떤 다른 시점 아래서 열거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즉,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관점.<sup>39)</sup>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전에 신학적으로 완전히 비워진 땅에 야웨에 의해서 다시금 건설된다. 그런 후에 새로운 엑서더스를 통해 회복된 이스라엘은 야웨에 의해 성전이 이미 세워져 있는 그 땅으로 인도되어 진다.<sup>40)</sup> 그곳에서 야웨는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에 상응하여 에스겔 47장 13절 이하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확신은 단지 야웨에 의해서만 실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에스겔 47장 13절 이하는 결론으로 성전중심의 땅 분배를 언급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야웨에 의해 성취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대망한다. 그러므로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에 있는 땅의 분배에 있어 제비뽑기에 의한 땅의 분배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sup>41)</sup>

여기에서 우리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전의 길에 연결되어 있다(원점으로 소급함). 야웨에 의해 완성된 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바벨론으로부터의 두 번째 엑서더스의 기대, 이스라엘의 모음이라는 기대와(겔 20:34) 구분되지 않는다.<sup>42)</sup> 약속의 땅은 야웨에 의해 모아지고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주어질 것이다. 야웨의 주도권에 의해 이뤄지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새로운 땅의 분배와 관련된 이러한 생각은 이 점에서 족장들에 대한 야웨의 언약과 연결된다(겔 47:14).<sup>43)</sup> 이러한 연결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돌려 놓는 것과 유비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어떤 지정된 시점으로 되돌려져야만 한다 - 그것에 있어 다음은 명확하다: 12지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이러한 경과 안에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역사의 되돌림을 통한 이

39)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 결론만 말하자면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의 연구를 통해 47장 13절 이하의 독특한 서술의 방법이 발견되어 진다: 1) 첫 번째의 방법은 북쪽으로부터 남쪽 방향으로 서술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라는 도식을 만들 수도 있다. 2)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3)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40) 참고하라, 에스겔 34장 15절.

41) L. C. Allen, *윳글* (1990), 280. 또한 참조하라, 민수기 26장 55절 이하, 33장 54절, 34장 13절; 여호수아 14장 2절.

42) 비교하라, G. Fohrer/K. Galling, *Ezechiel* (HAT Bd.1/13; Tübingen: Mohr, 1955), 260; W. Zimmerli, *윳글* (1979), 1232f.; U. Schorn, *윳글*, 21f.; K.-F. Pohlmann (T. A. Rudnig), *윳글*, 620f.

43) 비교하라, T. A. Rudnig, *윳글*, 231; W. Zimmerli, *윳글* (1979), 1233f.

이스라엘의 회복은 12지파 이스라엘의 복구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정복 이전의 또는 왕정시대 이전의 시기를 역사 속에서 되돌려 놓아지는 시점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sup>44)</sup> 그곳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sup>45)</sup>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한 번 처음으로 되돌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땅의 점령의 초기에 이미 한번 행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명령이 주어진다.”<sup>46)</sup> “어떤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문턱으로 이끌려 세워진다. 이 문턱은 이스라엘이 이미 한 번 자신들의 이전의 역사에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통해 경험했던 것이다”<sup>47)</sup>

에스겔 47장 13절 이하는 이 테마와 모티브를 의도적으로 수용한다. 그리고 이 둘을 결합시킨다.<sup>48)</sup> 이것을 통해 에스겔 47장 13절 이하는 에스겔 40-48장과 그리고 전체 에스겔서와 연결된다. 특별히 에스겔 47장 13절 이하는 에스겔 40-48장의 초두에 언급되는 성전 건설과 관련된 대응물(Pendant)을 형성한다. 에스겔 47장 13절 이하는 에스겔 40-48장과 함께 구조적으로 또한 문학적으로 서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 에스겔 47장 13절 이하는 에스겔 40-48장을 종결하는 부분으로서 또한 에스겔서 전체를 종결하는 부분으로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맥락아래 놓여 있다는<sup>49)</sup>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상응하여 에스겔서는 포로기 후기의 시기에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포로기의 책”<sup>50)</sup>이 된다. 왜냐하면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의 형태 안에서 자신의 종결부분과 함께 에스겔서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을 통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희망은 현재적인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제까지의 확인의 근거로 새로운 경계의 묘사와(겔 47:15-20) 땅의 분배의 묘

44) 비교하라, T. A. Rudnig, *윳글*, 231f.; R. Albertz, *Die Exilszeit, 6. Jahrhundert v. Chr.* (Biblische Enzyklopädie Bd.7; Stuttgart / Berlin / Köln: Kohlhammer, 2001), 457f.; H. Seebass, *윳글*, 217.

45) W. Zimmerli, *윳글* (1979), 121f.

46) W. Zimmerli, *윳글* (1979), 121f.

47) W. Zimmerli, *윳글* (1979), 1234. 비교하라, K. -F. Pohlmann (T. A. Rudnig), *윳글*, 624f.

48) 비교하라, U. Schorn, *윳글*, 20-29.

49) H. F. Fuhs, *Ezechiel 25-48* (NEB Bd.22; Würzburg: Echter-Verlag, 1988), 260; U. Schorn, *윳글*, 20-29

50) R. Albertz, *윳글*, 265.

사를(겔 48:1-28)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야웨에 의한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새로운 땅의 분배의 모사라는 테마 아래 요약할 수 있는 에스겔 47장 13절-48장 29절은 세 가지 종결을 형성한다: 맨 먼저 에스겔 40-48장의 제도의 초안의 대미(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개의 테마들은 제도 초안의 결말이다), 두 번째 에스겔 33-48장의 구원의 선포의 종결(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의 상징으로써), 그리고 세 번째 에스겔서의 클라이맥스적인 종결(심판 이후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상 상으로써). 야웨는 스스로 이스라엘을 야웨 그 자신에 의해 다시 회복되고 생기 있게 된 그 땅으로 이끈다. 또한 야웨는 이 땅을 스스로 12지파 이스라엘에게 분배한다. 야웨의 성전은 그 땅의 중심에 놓일 것이다. 이러한 모든 관점에서부터 또한 다음의 생각이 명확히 가능케 된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상의 중심에는 단지 성전만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위치적으로), 야웨 자신이 또한 그 중심에 놓여 있다(신학적으로). 그 때에 야웨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절정의 야웨 중심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상은 에스겔 48장 30-35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된다: 그리고 이 도시는 ‘야웨삼마’라 이름 바뀌어 진다. 야웨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중심이(קִדְמוֹת תַּבְעֻקֵּי) 51) 된다. 52)

## 7. 참고문헌

- 브루지만, W., 볼프, H. W., 「구약 성서중심사상」(문화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2).  
 원제 W. Brueggemann/H. W. Wolff, *The Vitality of Old Testament Traditions*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슈미트, 베르너 H., 「구약 성서 입문 I」(차준희/채홍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

51) 오경에서 קִדְמוֹת תַּבְעֻקֵּי(타베크)의 사용과 의미 그리고 개념에 관해서는 F. Bark, *Ein Heiligtum im Kopf des Leser: literaranalytische Betrachtungen zu Ex 25-40* (Stuttgart: Verlag Katholische Bibelwerk, 2009), 89-94를 참조하라. 또한 다음의 용례와 비교하라. 레 26:3, 11-12.

52) 대단원의 종결을 말하는 에스겔 47장 13절-48장 29절에서 마지막 부분인 48장 30-35절의 언급이 누락되었다. 전체 에스겔서가 통일성을 갖춘 잘 짜인 계획된 완결체라는 논의에서 마지막 단락의 누락이 전체의 논지를 흐리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마지막 단락은 앞선 48:1-29절의 새로운 출애굽 모티브의 확정 서술을 위한 첨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에서 마지막 단락을 제외한 것은 이 본문이 후주곡의 형태로 클라이맥스 뒤에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이 단락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i-Young Leem, *유태*, 291 각주 1139를 참조하라.



- 서희, 2001). 원제 Werner H. Schmidt,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 Albertz, R., *Die Exilszeit, 6. Jahrhundert v. Chr.* (Biblische Enzyklopädie 7; Stuttgart/Berlin/Köln: Kohlhammer, 2001).
- Allen, L. C., *Ezechiel 20-48* (WBC 29; Dallas: Word Books, 1990).
- \_\_\_\_\_, *Ezechiel 1-19* (WBC 28; Dallas: Word Books, 1994).
- Bark, F., *Ein Heiligtum im Kopf des Leser: literaturanalytische Betrachtungen zu Ex 25-40* (Stuttgart: Verlag Katholische Bibelwerk, 2009).
- Becker, J., "Erwägung zur ezechielischen Frage," L. Ruppert, P. Weimar und E. Zenger (Hgg.), *Künder des Wortes. FS für J. Schreiner* (Würzburg: Echter-Verlag, 1982), 137-149.
- Crüsemann, F., *Bewahrung der Freiheit, das Thema des Dekalogs in sozialgeschichtlicher Perspektive* (München: Kaiser, 1983).
- Diepold, P., *Israels Land* (Stuttgart u.a.: Kohlhammer, 1972).
- Fistill, U., *Israel und das Ostjordanland: Untersuchungen zur Komposition von Num 21,21-36,13 im Hinblick auf die Entstehung des Buches Numeri* (Österreichische Biblische Studien Bd.30; Frankfurt a. M. u.a.: Lang, 2007).
- Fohrer, G. / Galling, K., *Ezechiel* (HAT 1/13; Tübingen: Mohr, 1955).
- Fuhs, H. F., *Ezechiel 25-48* (NEB Bd.22; Würzburg: Echter-Verlag, 1988).
- Gese, H., *Der Verfassungsentwurf des Ezechiel(Kap. 40-48): traditionsgeschichtlich untersucht* (BHTh Bd.25; Tübingen: J. C. B. Mohr, 1957).
- Greenberg, M., *Ezekiel 1-2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B Bd.22; Garden City/New York: Doubleday, 1983).
- \_\_\_\_\_, *Ezekiel 21-37,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B Bd.22a; Garden City/New York, Doubleday, 1997).
- Herrmann, J., *Ezechielstudien* (BWAT Bd.2; Leipzig: Hinrichs, 1908).
- Hölscher, G., *Hesekiel, Der Dichter und das Buch: Eine literarkritische Untersuchung* (BZAW Bd.39; Giessen: Töpelmann, 1924).

- Koch, K., *Die Profeten II. Baylonische–persische Zeit* (Stuttgart u.a.: Kohlhammer, 1980, 2., durchges. Aufl., 1998).
- Konkel, M., *Architektur des Heiligen. Studien zur zweiten Tempelvision Ezechiels (Ez 40–48)*, Bonner Biblische Beiträge (Berlin: Philo, 2001).
- Kraetzschmar, R., *Das Buch Ezechiel* (Hand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Bd.3/3,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0).
- Lang, B., *Ezechiel. Der Prophet und das Buch* (EdF Bd.153;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1).
- Leem, Si-Young, “Die Vision von neuen Israel: Literarische Struktur, Kompositionsgeschichte und theologische Bedeutung von Ez47f.,” Dr. theol. Dissertation (Heidelberg Universität, 2010).
- Liss, H., “Describe the Temple to the House of Israels,” Ehud Ben Ziv (Hgg.), *Utopia and Dystopia in Prophetic Literature* (Goe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2006), 122–143.
- Machholz, G. C., “Noch einmal, Planungen für den Wiederaufbau nach der Katastrophe von 587: Erwägungen zum Schlussteil des sog. “Verfassungsentwurfs des Hesekiel” (VT Bd.19; Leiden u.a.: Brill, 1969), 322–352.
- Pohlmann, K. -F., *Das Buch des Propheten Hesekiel(Ezechiel). Kapitel 20–48. Mit einem Beitrag v. T.A. Rudnig* (ATD Bd.22/2;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2001).
- Rendtorff, 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 Ein kanonischer Entwurf. Bd.1: Kanonische Grundlegun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9).
- Rudnig, T. A., *Heilig und Profan. Redaktionskritische Studien zu Ez 40–48* (BZAW Bd.287; Berlin/New York: de Gruyter, 2000).
- Schorn, U., *Ruben und das System der zwölf Stämme Israels: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en zur Bedeutung des Erstgeborenen Jakobs* (BZAW Bd.248; Berlin/New York: de Gruyter, 1997).
- Seebass, H., “Erwägungen zum altisraelitischen System der zwölf Stämme,” ZAW 90 (1978), 196–220.

- Smend, R., *Der Prophet Ezechiel: Kurzgefasstes exegetisches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Leipzig: Hirzel, 1880).
- Wolff, H. W.,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Gütersloh: Kaiser, 1973, 7. Aufl. (in neuer Ausstattung), 2002).
- Zimmerli, W., *Ezechiel, Teilbd.1: Ezechiel 1–24* (BK Bd.13/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2., verb., durch e. neues Vorw. u. e. Literaturnachtr. erw. Aufl., 1979).
- \_\_\_\_\_, *Ezechiel, Teilbd.2: Ezechiel 25–48* (BK Bd.13/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2., verb., durch e. neues Vorw. u. e. Literaturnachtr. erw. Aufl., 1979).
- \_\_\_\_\_, *Studien zu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und Prophetie: Gesammelte Aufsätze/W. Zimmerli Bd.2* (Theologische Bücherei Bd.51; München: Kaiser, 1974).
- \_\_\_\_\_, “Planungen für den Wiederaufbau nach der Katastrophe von 587”, (VT Bd.18; Leiden u.a.: Brill, 1968), 228–255.

## 검색어

에스겔 40-48장

회복

12지파 이스라엘

기록한 드림

새로운 출애굽

# Theological meaning of Ezek 47:13ff. as the Finale of the Book of Ezekiel

**Si-Young Leem**

Lecturer at Sungkyul University

Heidelberg University Th.D.

The research begins with the study on the literary structure of Ezek 47:13ff., which will be expected to clarify that the section forms the climax of the whole book. Through this analysis of Ezek 47:13ff. it will answered to the question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and symbolic meanings of the descriptions of land's boundaries as well as the land distribution, and what kind of theology can be shed to the whole book of Ezekiel? This study proves that Ezek 47:13ff. is not the results of editorial activities. Rather it is appropriate, realistic, and meaningful conclusion which embraces the whole book.

In the circumstances of the land distribution which is made for the tribes of Israel under Yahweh's initiative, Ezek 47:13ff. develops three endings: the first, the finale of the systematic draft(Verfassungsentwurf)

of Ezek 40-48; the second, the end of Ezek 33-48(declaration of salvation); the third, the end of the whole book of Ezekiels.

Yahweh himself restores Israel and leads Israel to that land which regains vitality once again. Also, Yahweh himself distributes this land to the twelve tribes of Israel. Yahweh's sanctuary will stand at the center of the land. However, the center of the ideal and restored Israel is not the geographical location. Yahweh himself stands in the center(theological location). This city is named 'Yahweh Shammah'. Thus, Yahweh appears as the new center of Israel.

## Keywords

Ezekiel chaps. 40-48

Restoration

The twelve tribes of Israel

Allotment

New Exodus

- 투고일: 2012년 4월 1일
- 심사일: 2012년 5월 10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14일

[www.kci.go.kr](http://www.kci.go.kr)